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스타트업 지원 거점 '주목'

중기부, 전국 17개 지원센터 동시 개소 출범식 전남은 창경센터서 운영…법무·세무 등 원스톱

고을 창업스테이션이 스타트업 원스톱 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7개에서 원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스타트업 원 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

광주 창업 생태계 혁신의 전초기지인 빛 체, 지원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동시 개소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자의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의 시작을 선언한 자리로,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새정 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광주에서는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전남 에서는 여수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 센터가 역할을 수행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세무・특허・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부의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종의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그동안 중기부는 센터 구축을 위해 10회 에 걸쳐 창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했고, 민간 협단체와 연계해 분 야별 전문가, 대기업 퇴직인력, 성공한 선 배 창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

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가 보 유한 법률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글로벌

진충 등 서비스 인프라를 원스톱 센터에 연계•공유, 창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 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자들이 여 그간 지역 창경센터의 활동 내용을 점검하 러 곳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한 곳에 서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정부와 민 간이 함께 구축했다"며 "원스톱 지원체계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는 주요 민간 협단 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 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센터 출범식에 이어 원 스톱 지원센터의 현장 창구 역할을 담당하 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들과 함께 고 원스톱 지원센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온라인 원

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해 지역과 시간의 제약 없이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 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농협 전남본부, '새 청년농업인상' 2명 배출 이동진・최경선씨 선정… 지역농업 혁신 기여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새로운 청년농 용산면) 와 최경선씨(광양시 광양읍) 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청년농업인상'은 미래 농 업·농촌을 이끌 청년 인재를 발굴·육 신설한 상으로, 매년 전국에서 20여 농업·농촌의 핵심 후계 인력으로 활 으로 성장했다. 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장흥군 용산면에서 수도 축산(한우), 조사료, 두류(콩) 등으 로 영농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콩 육묘 이식재배법을 도입해 생육 안

농협 전남본부는 1일 농협중앙회 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 으며,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을 적극 업인상'시상식에서 이동진씨(장흥군 도입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귀농민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자 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도 해오고 있다.

최경선씨(우신농원)는 2013년 귀 성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2017년 농이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 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현재까 로 농장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4628 지 전국 161명, 전남에서는 14명의 ㎡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약 3 청년농업인이 이 상을 통해 성장하며 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선도농업인

특히 외국 고추 특수 품종을 직접 이동진씨 (금곡영농조합법인) 는 발굴·재배해 1000여개 월드푸드마트 •아시아마트 등 거래처를 확보하며 국 작을 기반으로 농업에 뛰어들어 현재 내 거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역 농업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 이동진씨와 최경선씨가 선정됐다.

2025년 12월 02일

☆☆@세상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소진공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정부 프로젝트 선정

상권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운영전략 수립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가 정부의 인공지능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 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 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민생 분야 AI 과제를 공모한 뒤 관계부처 협의 와 두 차례의 전문가 기술・타당성 대면평 가를 거쳐 부총리 직속 '국민효능감 AI서 비스 TF'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후보과 제를 선정,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10 대 과제를 확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 트'는 교통・인구・매출 등 상권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 추천, 제품 및 단가 제안, 영업시간 조정, 운영전략 수립 등 맞춤형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창업 준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 비스이며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 공인 365)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영 환 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며, 월평균 73 만5000건의 플랫폼 이용 실적을 바탕으 로 빠른 확산과 높은 현장 체감 효과가 기 먼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기부와 소진공은 내년 초부터 해당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구축과 데이 터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소상공인365 내에서 '소상공인 AI 창업· 경영 컨설턴트' 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계 획이다. 소상공인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평균 매출 증가와 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 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의 AI 민 생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소상공인의 디 지털 전환이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예비창업 자와 소상공인이 AI 시대의 변화를 가장 AI 기반 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 돌봄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지난 일주일 간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를 확 산하고 취약 노동자인 돌봄 종사자의 근 무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지역 40개 주간보호 센터와 돌봄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인권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

재단과 협의회는 종사자들이 스스로 권 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실 시했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의 질을 떠받치는 돌 봄 종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다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돌봄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 다는 평가다.

특히 돌봄서비스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 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결국 시민 전체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통 합돌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 기가 됐다.

재단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필수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